

횡성연극,

꼬치

선바우 이야기

주최/주관



한국예총 | 횡성지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횡성군

횡성연극,

꽃

선바우 이야기



2023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

꽃_선바우 이야기

2023. 11. 15 **수** 낮 1시30분, 저녁 7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기획/제작: (사)한국예총 횡성지회

극작: 백하룡

연출: 박정석

후원: 횡성군, 문화체육관광부



마침내,



들꽃 한 송이 몸짓언어로 피어나다.

정재영(횡성 예총 회장. 소설가)



마침내,

반만년 오랜 세월 우리 땅 횡성에서 코 박고 살던 민초(民草)들의
마음자리 안 간절한 바람들이 횡성문화예술회관 무대에서 한 송이 들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일찍이 김춘수 시인(詩人)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적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어머니 적부터

빈한(貧寒)하기만 한 삶 살다가 흔적도 없이 스러져 간 이 땅의 민초들,
그네들은 한 생을 살면서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마음자리 안 꽃 한 송이
피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이번에 횡성 최초로 무대에 올려질 창작 연극 ‘꽃_선 바우 이야기’는

언젠가는 하늘에서 불꽃처럼 강림하실 ‘미륵(彌勒)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희망의 끈 놓지 않고 잡초처럼 살아온 우리 땅 횡성 사람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20여 년 전,

뜻하지 않게 정든 고향 땅을 차가운 횡성호 깊은 물 속에 묻어버리고,
황망하게 수하리를 떠났던 수몰민이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되어버린 고향
마을에 돌아와, 간절한 바람을 그물에 담아 그 푸른 호수 속에 그물을
던지면서 기나긴 반만년 횡성 사람들의 회한(悔恨)의 대서사시(大敘事詩)가
배우들의 몸짓언어로 태어나게 됩니다.



잉어 대신 그물에 건져 올려진 묘령의 여인이 건네준 꽃 한 송이 그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꽃에는
영웅이 될 것이 두려워 사랑하는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하는
기구하기만 한 부모님.
태기산에서 회한의 마침표를 찍어야만 했던 비운의 태기왕.
이름 없이 군번도 없이 호미 대신 칼을 들고 분연히 왜적과 싸우다 스러져간
수많은 의병들과 독립 투사들.

그리고

가진 자들에 쫓겨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하며 깊은 산속에 침잠하며
부데기 일구며 평생을 마이너 리그로 살아온 이 땅의 화전민(火田民)들의
한(限)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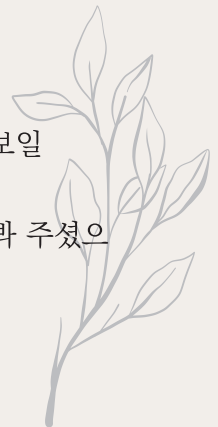
그 회한의 못 민초들을 호명해 그네들 마음자리 안에 꽃 한 송이 들려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닌 당위(當爲)로.

비록 배우들의 몸짓언어로 풀어내는 일련의 작업일 테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진혼제의 샤먼처럼 용서와 화해의 겸허한 자세로 객석에 앉아
동참해야 할 거 같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횡성 예총에서 나름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 이번에 여러분께 선보일
첫 창작 연극 ‘꽃_선바우 이야기’
풀꽃을 바라보는 시인의 감성으로 그렇게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셨으
면 감사 하겠습니다.





가을빛이 깊어만 갑니다.

시나브로

그 벽찬 감성 때문에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이 연극이 뜻하지 않은 3년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칠대로 지친 5만 군민들의 심신을 치유하는 힐링의 시간으로 향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기원 해 봅니다.

‘2023 지역 문화 활력 촉진 지원사업’으로 이 연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명기 횡성군수님과 김영숙 의장님께 5백여 횡성 예술인을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여름을 반납하고 글을 써 주신 백하룡 작가님, 재창작의 자세로 창작극을 보석처럼 갈고 닦아주신 박정석 연출 감독님,

그리고 합숙까지 해 가면서 연극을 위해 혼신을 노력을 기울여 주신 18명의 배우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스태프 여러분께도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횡성 예총 회장, 소설가)





축사

횡성군수 김명기

우리 횡성을 빛내줄 창작연극 '꽃-선바우 이야기' 공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작품이 제작돼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기까지 여러모로 애써주신 정재영 회장님과 (사)한국예총 횡성지회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연출가님과 작가님, 배우님들을 비롯한 공연 스태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작품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고,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터전인 횡성을 무대로 횡성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져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공연이 우리 군민의 정체성을 담은 공연이자 횡성을 대표하는 작품으로서 오래도록 사랑받길 바라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해주길 바랍니다.

민선 8기 우리 군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여유로운 횡성이 될 수 있도록, 365일 멋과 예술이 흐르는 문화휴식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볼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군민의 자부심을 드높이는 한편, 지금 우리가 써나가고 있는 횡성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훗날 언젠가 또 하나의 작품으로서 오래도록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께서도 지역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횡성 발전 또한 뜨겁게 성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겨울의 길목으로 향해가는 요즘, 이번 공연이 우리 마음 가득 따스한 감동과 행복을 채워주길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황성군의회 의장 김 영 숙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창작 연극, ‘꽃-선바우 이야기’를 제작하여 선보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지역 예술 문화의 창달과 발전에 항상 힘써주시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황성지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연극 제작을 위해 노력해주신 정재영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공연을 준비해 주신 연기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합니다.

황성을 소재로 한 이번 창작 연극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한 번쯤 되돌아 보며, 옛 조상들로부터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연에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극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잔잔한 감동과 함께 위로를 선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하룡



작가의 글 | 백하룡

작품 '꽃'은 강원도 횡성 지방의 '선바우 전설'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작품을 위하여 횡성의 많은 역사적 사실이나 설화들을 조사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장수 전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웅이 될 '장수'가 태어났지만, 영웅이 될 것을 두려워 해 스스로 자기 아이의 목숨을 거두는 설화 말입니다. 아마 얼마쯤 그 옛날 신라군에 쫓기던 태기왕이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과거 강원도 내륙의 이 척박한 곳은 혁명과 영웅을 간절히 바라던 민초들의 어떤 마음과 염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작품을 위하여 이 설화들을 가지고 놀며 또 어쩐지 꽃밭에 있었습니다.
그 옛날 산골짜기 화전민들 그것은 불이겠으나 또 꽃이 아니었을까요.
하늘로 내쫓긴 인간들의 막장은 화전이었을 겁니다.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불과 꽃 두 가지를 염두에 두며 꽃 한 송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이 서글프고 깊은 설화와 이야기를 헤엄치다 소방울 소리에 이끌려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는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어울려 하나의 작업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작업을 함께 할 모든 사람들에게, 유정과 무정 모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박정석

연출의 글 | 박정석



횡성 '어러리'를 듣는다.

괜히 처량해지고 울적해진다.

수심에 가득 차 있는 목소리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그려본다.

삶의 고단함과 걱정근심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냈을 횡성의 사람들.

생존을 위해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 슬픔을 견디고 아픔을 이겨냈을 사람들.

그 땅의 노래, 흙의 노래, 물의 노래를 듣는다.

‘꽃-선바우 이야기’는 횡성 사람들의 이야기를 펼쳐낸다.

가깝게는 정든 고향을 떠나 타지로 떠돌던 이가 나이가 들어 홀어머니 병수발을 위해 다시 찾아와 병든 어머니에게 먹일 잉어 한 마리 낚기 위해 횡성호에서 그물질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잡고자하는 잉어 대신 묘령의 여인을 낚게 되고, 그녀가 전해 준 꽃을 따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류로의 여행, 과거로의 여행을 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 속에 횡성의 지명과 전설. 횡성의 역사와 문화가 지금의 횡성 사람들의 정서(역사성과 감수성)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언제쯤에선가 어느 곳에선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다가 정착하게 되었던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의 사람들.

사람들은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는다.

그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가 만나고, 현재와 미래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티격태격하면서 부대끼면서도 화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여행의 끝자락에서 발견해야 하는 미덕일 것이다.

그래보기를 희망한다.



CAST : 출연배우



성홍일 | 사내

연극

맥베드, 관객모독, 뮤지컬 이육사, 남도, 햄릿6



한재호 | 바우

연극

선녀씨 이야기,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 토지 1, 리어왕, 방패

수상

제36회 경남연극제 신인연기상

제72회 개천 예술 연극제 독백 부문 금상



조해민 | 나루

연극

동행, 행복로 9-1, 그때 그사람, 소풍, 우산그늘

수상

2019년 신춘문예 단막극제 우수연기상



박인환 | 가래

연극

저승찾집, 세어런팅, 레미제라블, 낮선 동행, 민중의 적

CAST

: 출연배우



문창완 | 노인, 미친왕

연극

리어왕, 허길동전, 레미제라블, 집을 떠나며, 배신

수상

2017년 거창韓 여름연극제 연기상

2014년 신춘문예 단막극제 우수연기상



양승한 | 소몰이, 용마

연극

동방의 햄릿, 저승, 스카핑의 연극놀이, <너,돈끼호테>, 변신, 유어바디, 침묵, 색

수상

밀양공연예술축제 손숙연기상



김홍부 | 아비, 코러스

연극

행복로 9-1, 도산 안창호, 김구 로드 프로젝트, 윤동주와 시간의 거미줄



윤미애 | 어미, 코러스

연극

동행, 그들의 밤은 누구의 낮보다도, 저승, 마냥 씩씩한 로맨스, 마지막 여행

CAST : 출연배우



홍수민 | 캐캐소여인

연극

행복로 9-1, 그들의 밤은 누구의 낮보다도, 인간실격,
월곡동 산 2번지, 모두 안녕하십니까



이희재 | 군졸1, 코러스

연극

행복로 9-1, 그들의 밤은 누구의 낮보다도, 레벨29 김리사,
그때 그 사람, 한낮의 유령



박슬찬 | 군졸2, 코러스

연극

날지 못하는 슈퍼맨, 행복로 9-1, 동행 외 다수



임기현 | 간자, 코러스

연극

언택트 커넥션, 달과 골짜기, 전하지 못한 인사,
반성문: 살인기억, 루트 64

CAST

: 특별출연

수백초등학교 학생 배우



한수산

바우(어린시절)



박시호

가래(어린시절)



전은진

나루(어린시절)



박라임

만세소녀, 코러스



안정현

만세소녀, 코러스



유호인

만세소녀, 코러스

CREATIVE TEAM

작가 | 백하룡

연출 | 박정석

총괄프로듀서 | 김현

조연출 | 김윤주

연기안무지도 | 이경우

음악감독 | 김동욱

조명/음향 | 스타원커뮤니케이션

의상 디자인 | 조현정

영상 디자인/영상촬영 | 필라멘트

무대 디자인 | 한강커뮤니케이션즈

소품/효과 | 한강커뮤니케이션즈

분장 디자인 | 김근영

분장팀 | 임영희, 석필선

표지 이미지 | 조동선

책자 디자인 | 이유민

기획/행정 | 허남춘



사단법인 한국예총
FACO

황성지회

(사)한국예총 황성지회(이하 황성예총)는 2021년 8월 30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사)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사)한국국악협회 황성지부, (사)한국미술협회 황성지부, (사)한국음악협회 황성지부,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황성지부 등 5개 회원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성예총은 지역예술인들의 화합과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황성이 문화예술의 고장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21. 8. (사)한국예총 황성지회 창립
- 2022. 8. (사)한국국악협회 황성지부 주관
 - 제9회 정기발표회
 - “백세인생, 황성이라 전해라” 공연
- 2022. 9. (사)한국미술협회 황성지부 주관
 - 2022 황성미술은행
 - 제3회 황성미술협회전, “희망을 품다, 황성미술”
- 2022. 12. (사)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주관
 - 인문학 아카데미, 문학기행
 - ‘황성문단’ 발간, 북콘서트
- (사)한국예총 황성지회 주관
 - 2022 황성예술제
 - “황성예술” 발간
- 2023. 4. (사)한국예총 황성지회 주관
 - 2023 황성문화예술강사 양성과정
- 2023. 9.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황성지부 주관
 - 황성 연예예술인 100인의 강변무대, “섬강으로 가요, 뮤직 페스티벌”
- (사)한국국악협회 황성지부 주관
 - 제10회 정기발표회
 - “희망과 낭만이 있는 황성!” 공연
- 2023. 10 (사)한국미술협회 황성지부 주관
 - 2023 황성미술은행
 - 제4회 황성미술협회전, “황성의 美와 자연을 잇다”
- 2023. 11 (사)한국문인협회 황성지부 주관
 - 문학기행, 인문학 강좌
 - ‘황성문단’ 발간, 북콘서트 (11월 23일 예정)
- (사)한국예총 황성지회 주관
 -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창작연극, “꽃 - 선바우 이야기” 제작, 공연
 - 2023 황성예술제 (12월 14일 예정)
- 2023. 12 (사)한국음악협회 황성지부 주관
 - 300인의 클래식 무대, 2023 황성교향악 대축제 (12월 16일 예정)



(사)한국예총 황성지회

(2523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1층 횡성국민체육센터

T | 033,345,8867 F | 033,345,8868 WWW.hs-art.kr

Copyright(C) 황성예총 All Rights Reserved.



"황성예총"

